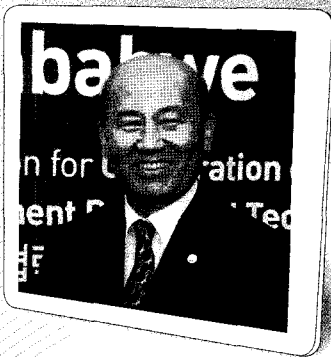


# 01 국내 물산업, 아프리카 시장 진출 초읽기



## 한국-짐바브웨 상하수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물산업의 블랙오션,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국내 물산업의 아프리카지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 지난 8월 18일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은코모(Hon.Sam.S.Nkomo) 짐바브웨 수자원개발부 장관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양국간 상하수도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짐바브웨 수자원개발부 장관은 지난 4월에도 환경부를 방문해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물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을 요청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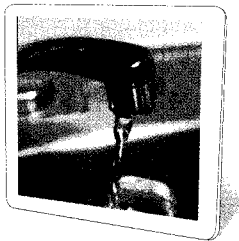
환경부는 짐바브웨와의 상하수도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짐바브웨의 물문제를 해결해 주는 한편, 국내 물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국내 물산업의 해외진출은 주로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지역 등 개도국 중심으로 형성됐지만,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블랙오션인 아프리카 지역까지 진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MOU 체결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상하수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양국 관련부처 및 기관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호협력위원회'가 구성·운영될 계획이다.

현재 짐바브웨에는 20년 이상 된 하수처리장 3곳이 설치돼 있으나,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상하수도 위생관리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콜레라로 주민 4,000여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짐바브웨는 상업적 가치가 높은 광물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자원외교와 연계될 경우 관련기업의 해외진출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체결식의 의미를 밝혔다.

글로벌 녹색성장파트너십 구축으로 앞으로 상하수도 분야의 다양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

## 02 상수도제도 대수술, 성공적으로 마무리



### 서울시 수도조례 전면 개정, 9월 하순부터 시행 수도요금 분쟁 굿바이! 시민불편 사라진다!

\*

서울시는 최근 고질적인 민원과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시민고객의 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9월부터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입주한 점포 주인들의 동일 계량기 사용으로 인한 수도요금 분쟁이 사라지게 됐다. 조례 개정으로 건물 입주자 간 수도요금 분담 시비를 일으켰던 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계량기 분리를 원하는 건물은 내부 배관을 분리한 후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점포별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계량기를 분리해 설치할 경우 1만4,442개 점포가 연평균 13만7,000원의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 건물 내 업종이 같은 점포에 대한 계량기 분리 설치 허용, 가정용과 영업용이 함께 사용되는 건물에 대한 옥내누수 요금 50% 감면, 옥내 노

후관 개량비 지원 대상을 330㎡ 이하 다가구 주택까지 확대' 등이 있다. 이밖에도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울 때 급수 중지를 신청하면 구경(수도관 지름)별 기본요금이 감면된다. 또한 수도계량기 뒤 밸브를 잠가 옥내누수가 없도록 하고 급수 중지를 신청하면 수도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불합리한 요금 부과방법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시민고객의 불만 요인이 되어 왔던 상수도 관련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협회장)은 "서울의 수도물 아리수가 UN으로부터 2009 공공행정상 대상을 받아 품질과 수질관리 시스템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데 이어, 이번 수도조례의 전면 개정을 통해 품질 뿐 아니라 서비스 만족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 03 잘 찍은 사진 한 장, 물사랑 홍보대사 역할 '톡톡'



제7회 우리는 물사랑 디카족 사진공모전 대상



## 환경부 '제7회 우리는 물사랑 디카족 사진 공모전' 시상식 개최 총 1,142점 작품 출품, 38:1의 경쟁률 뚫고 최종 30점 입상



환경부가 주최하고 우리 협회가 주관한 '제7회 우리는 물사랑 디카족 사진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9월 7일 환경부에서 개최됐다. 6명의 상위 수상자와 이병욱 환경부 차관이 참석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50인치 TV, 노트북 컴퓨터, DSLR 카메라 등 천만원 상당의 상품과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대상의 영예를 차지한 '시원한 물 마시는 3남매'의 한윤이 씨는 "공모전을 통해 물의 소중함을 실감했을 뿐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수상의 기쁨을 전했다. 2003년 시작 이래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공모전은 '물(수돗물)과 우리 생활', '물이 주는 풍요로움과 행복', '물이 가꾸는 자연'의 3개 주제로 진행됐으며, 1,142점의 작품이 최종 접수되어 38: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1회(2003년 520점)공모전과 비교

할 때 괄목할 만한 수의 작품이 접수되어 물과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환경부 이병욱 차관은 시상식 축사를 통해 "이제는 국민 모두가 물 절약의 필요성을 인식할 때"임을 역설하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물사랑 지킴이로서의 소명을 갖고 일상생활에서 물절약을 실천하는 홍보사절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상식 이후 이병욱 차관은 수상자들과 함께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에 전시 중인 작품을 감상하며, 선정된 작품과 물의 소중함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입상작들은 예년과 같이 전국 학교, 도서관 및 관공서 등에 대어·전시하여 많은 국민들이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소개할 예정이다. 잘 찍은 사진 한 장이 물과 생명의 가치와 고마움을 일깨워 주는 물사랑 홍보 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이다. ☺

# 04 물산업 미래 청년리더(PM) 본격 양성



## 1기 수료식에 이어 2기 입교식 열려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집중 양성



환경부와 우리 협회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물산업 분야의 청년리더를 양성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물산업 프로젝트매니저 양성과정'의 1기 수료식이 지난 7월 21일 환경부 이병욱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아라홀에서 열렸다. 서류전형 등을 통해 선발된 55명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협회는 지난 3월 30일부터 약 4개월가량 물산업 분야의 기초 역량과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비즈니스 역량 배양을 위한 집중 트레이닝 과정을 진행했다. 또한 물 관련 산업체가 현장에서 요구하는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실무 위주의 현장교육과정(기업 인턴십)을 병행하여 운영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교육생 전원이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서 인턴과정을 밟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17일 제2기 교육생 55명이 입교해 현재

교육 중이며, 오는 12월까지 역량 배양을 위해 집중 트레이닝을 받을 예정이다.

국가 차원에서 전격 양성되고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는 그동안 기업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로 평가되어 왔던 프로젝트 주수와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한 기업맞춤형 전문 인력으로,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역량을 기반으로 해당 기업의 핵심 진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1기 수료식에 참석한 환경부 이병욱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계와 손잡고 추진하고 있는 동 사업이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기타 분야로까지 파급 효과를 미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참여 기관의 헌신과 노력을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